일 주 문



JSA법당 상량식

정우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스님은 9월 6일 오후 2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서 신축법당 무량수전 상량식을 봉행한다.



지장90일기도 회향

경선 부산 범어사 주지 스님은 8월 30일 오전 7시 범어사를 출발해 하동 쌍계사서 '지장90일기도 회향 방생법회'를 봉행한다.



교양대학 50기 수료

일관 남양주 봉선사 주지 스님은 8월 23일 경내 청풍루에서 불교교양대학 제50기 수료식을 개최한다.



육군3사관학교 수계법회

돈관 영천 은해사 주지 스님은 8월 21일 육군3사관학교 충성호국사서 군장병 500여 명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문태준 인문학 특강

월도 분당 대광사 주지 스님은 8월 28일 오전 10시 30분 대광사 경내서 문태준 시인 초청 인문학 특강을 개최한다.



팔재계수계실천 법회

윤기중 조계종 포교사단장은 9월 24일 오후 5시 보은 법주사서 제14회 팔재계수계실천 대법회를 봉행한다.

현대불교문인협회장에 원담 스님

8월 12일 총회서 오현 스님 후임으로



현대불교문인협회는 8월 12일 인제군 만해마을 설악관서 총회를 열고, 회장 설악 오현 스님(조계종 원로의원) 후임으로 율곡사 주지 원담 스님〈사진〉을 선출했다.

원담 스님은 강원도 홍천 출신으로 1984년 해인사로 출가해 자운 스님으로부터 사미니계를 수지했다. 이후 범어사서 구족계를 받은 스님은 동학사 승가대학과 중앙승가대학을 졸업했다. 의령 유학사와 진주 의곡사 주지를 지냈다.

1992년 〈문학공간〉 시부문 신인상으로 등단한 스님은 시집 〈제비꽃 한 송이 가난한 내 뜨락에 필 때〉와 〈살구나무경經〉을 냈으며, 승가대신문사 편집장 및 '아름다운인연' 편집위원을 역임했다.

현대불교문인협회는 조계종 총무원 등록단체로 계간문예지 〈불교문예〉 발행과 현대불교문학상 등 불교문학을 통한 포교와 한국문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윤호섭 기자

"苦集 해결하는 힘, 그 속에 있다"

김규칠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진흥원 창립 41주년 특강서

"사성제에서 멸도(滅道)가 아주 다른 곳에 있다고 믿고, 고집(苦集)에 사로잡힌다면 부처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고집을 해결하는 힘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신을 내세우는 기독교와 이슬람과는 다른 세계관을 갖습니다."

김규칠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8월 16일 서울 마포구 진흥원 빌딩 3층 법당서 '불교적 세계관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특강했다. 특강은 대한불교진흥원 창립 41주년 기념식과 함께 진행됐다.

김규칠 이사장은 특강서 불교의 기본 교리인 사성제를 바탕으로 불교적 세계관의 기본특징 풀어냈다. 김 이사장은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일으키게 하는 것도 듀카(苦, dukka)고, 벗어나게 하는 것도 듀카다'고 설명하셨다"면서 "즉, 속의 것을 있는 그대로 깊이 보면 문제가 되는 현상에 그것을 해결할 힘이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사성제 바탕한 불교적 세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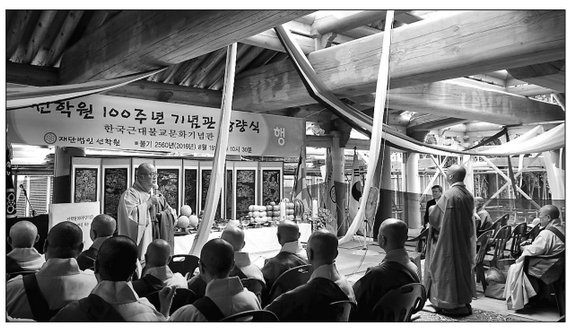
"부처님 말씀 피상적 해석 말고 현실 이해해 문제해결 나서야"

그는 이어 "'있는 그대로'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포함한다. 지구 표면에 드러나는 현상만 현실이 아니고, 내부의 변화도 현실이지만 우리는 단순히 안 나타나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며 "부처님 말씀을 피상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고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실을 뜻한다면 멸도는 쉽게 알아낼 수 없는 완벽한 현실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욕망으로 대변되는 삼독 중 '탐(貪)'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욕망은 존재론적인 것과 소유론적인 것이 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목마르면 마시고 싶은 것은 존재하기 위한 건강한 본능이기에 탐착이 아니다"며 "고도로 진화된 인간에겐 각각 특별함이 있고, 이것이 쌓이면 고유함이 된다. 불교의 여래장 사상과 통하는데 카스트에 따른 숙명론만 있던 당시에 이 같은 사상을 갖는다는 건 굉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끝으로 "분별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분별하는 마음에 머물지 말라는 것이다. 다만 뭐가 뭔지는 제대로 알고 나서 머물지 말라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다양성을 인정하게 돼 자기 진영논리를 펼치지 않는다. 이를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현대사회 문제 해결방법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호섭 기자



"한국불교 수행·문화의 거점으로"

선학원,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상량

선학원(이사장 법진)은 8월 18일 서울 안국동서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상량식을 봉행했다. 이날 상량식에는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과 고문 인환 스님을 비롯해 이사, 감사, 장로원, 범행단 스님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사장 법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큰 불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부딪히게 된다"며 불사에 만전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총무이사 송운 스님은 기념관 건립 경과를 보고하면서 "선학원 주변에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등의 궁궐과 한옥마을, 인사동길 등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명소가 산재해 있다"며 "선학원은 그 지정학적 위치와 불교수행과 포교·교육을 근간으로 한국전통문화의 보존과 현대적 계승, 불교문화창달의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참석 사부대중은 교무이사 한북 스님이 대표 낭독한 상량문을 함께 읽었으며 상량문을 대들보에 봉안하고 불공의식에 따라 상량했다.

한편 선학원은 2011년 이사회에서 기념관 건립을 논의 후 2013년 전국분원장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며 기념관 건립에 나선바 있다.

노덕현 기자

"만해 스님 유지, 통일운동으로 잇자"

제2회 통일문학축전 여는 선진규 대회장



"만해 스님은 조국 독립을 위해 추호도 굴함이 없었던 애국자였습니다. 또한 어떠한 고난도 감수했던 무아경(無我境)에 달한 보살이었습니다. 스님의 독립정신은 이제 통일정신으로 이어내야 합니다."

선진규 한국통일문학축전위원회 대회장〈사진〉은 8월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만해 스님과 통일 정신의 연계성을 강조하며 말머리를 풀었다. 그러면서 "만해 스님은 살아있었으면 통일 운동을 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만해 스님 탄신을 기념해 오는 8월 28, 29일 양일간 만해 스님 마지막 주석처인 성북동 심우장 일원서 열리는 제2회 한국통일문학축전은 문학을 통한 남북교류가 주된 목적이다.

8월 28일에 개최하는 '만해사상과 통일 대토론회'에서는 석길암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가 '만해 한용운의 독립정신과 통일'을 주제발표하며, 이봉춘 동국대 명예교수, 김경집 진각대 교수, 원혜영 동국대 강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심우장 입구 만해공원에서는 '통일 염원 5분 발원대회'가 열린다. 대한민국 성년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통일 염원 노인백일장'도 축전 1일차에 함께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28일 당일 오후 2시 시제가 발표되며 대회본부에서 제공하는 원고지에 원고작성을 완료한 뒤 오후 5시까지 대회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시상식은 29일 본행사 마지막에 진행된다. 장원 30만원, 차상 20만원, 차하 10만원, 장려 5만원 등이 주어지며 수상작은 계간 〈한국불교문학〉에 발표된다.

본행사는 8월 29일 오전 10시 시작되는 기념식이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 문학단체에 보내는 평화통일 염원 메시지가 발표될 예정이다. (02)379-4514

신성민 기자

사진으로 본 광주연등회

광주불교연합회, 빛고을관등회 사진전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는 8월 17일 광주 증심사서 '2016빛고을관등회 사진전-행복한 날 모두가 하나 되는 날' 개막전시회를 개최했다.

올해 봉축행사 사진을 대중에 공개하는 이 전시회는 오는 12월까지 광주지역 사찰 등을 순회하며 이어진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아프리카학교에 정성을…"

법기문중 문도회, 아프리카 학교기금 1000만원



금강산 법기문중 문도회(회장 본각)는 8월 16일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 측에 아프리카 탄자니아 학교 건립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에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화답하며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고등학교가 9월 개교 후 자리를 잡으면 종립학교로 전환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향후 계획을 언급했다.

박아름 기자

유재석, 나눔의집에 또 5천만원

8월 11일, 71주년 광복 앞두고 전달



경기 광주 나눔의집(원장 원행)은 "유재석 씨가 8월 11일 7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돕기 위해 5000만원을 후원했다"고 8월 12일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 들을 위한 인권센터 건립비 3000만원과 복지지원금 2000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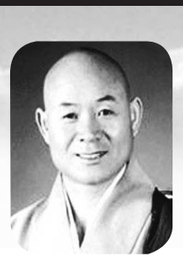
유재석 씨가 나눔의 집에 후원한 것은 이번으로 4번째다. 그 금액이 총 1억6000만원에 달한다.

박아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6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6년 9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